

글로벌 시대, 문화 해석의 새로운 지평*

박 치 완**

주제분류 문화철학, 해석학, 비교문화론

주요어 글로벌 시대, 세계화, 다문화공생, 단일보편문화, 특수복합문화

요약문

오늘날 세계화는 경제 분야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화, 지식의 영역에까지 침투해 있으며, 디지털 기술까지 이에 합체되어 더욱 강력한 형태의 단일 세계 지배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문화-지식-기술의 단일통합화는 소위 글로벌 행위자들, 신자유주의자들, 시장근본주의자들의 ‘감시와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한 계략에 다름 아니다.

본고에서 우리는 근대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현대에 이르러 재현·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와 같은 단일보편문화(uni-verse-culture)에 대한 환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수복합문화(pluri-verse-cultures) 개념을 창안해 다문화공생의 인식론적·방법론적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특수복합문화론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화해석학이라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로컬문화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문화다양성이 존중될 수 없다는데 기초한 새로운 철학적 연구지향이다.

민주주의도 인권도, 세계평화도 사회경제정의도 특수복합문화의 공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기대할 수 없다. 현금의 미국몽이나 중국몽 등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편’을 가장(假裝)한 일종의 ‘문화 침범’일 수도 있다. 머피드(K. Mofid)도 지목하듯, ‘은 인류를 위해 선한 것’과 ‘시장의 지배를 위한 계교(計巧)’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15년도 한국의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2014년 11월 인문콘텐츠학회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 한국의국어대학교 철학과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

- <문화다양성보호협약>, 전문7.

1. 4개의 기표로 점철된 21세기

21세기를 화려하게 수놓는 무수한 시니피양(記表)들이 존재하지만, 지구촌에 존재하는 대부분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아마도 경제의 성장에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경제초강국을 비롯해 신흥개발도상국인 대한민국도 이에 대한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성장에 대한 의심 부재, 무방편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21세기의 미래, 즉 ‘오직 성장’에 쏠린 일종의 ‘신앙심’은 경제 사이클에서의 둔화기나 하강기 자체를 전면 부인한다. 현대자본주의(신자유주의)에 대한 근원적 반성이 화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국가도 앞장서서 이미 통제 불능상태에 다다른 ‘신자유주의라는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계경제를 쥐락펴락 하는 미국이나 중국, 유럽연합, 일본마저도 인류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공공적이고 윤리적인 해법을 찾는 대신 ‘양적완화’와 같은 전대미문의 미봉책으로 위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뿐인가. 글로벌 공공선(global common good), 글로벌 경제 정의(global economic justice) 등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 온갖 사특(邪惡)한 방편들까지 동원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자들 또한 이들 국가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념과 수사대로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건 모두와의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자 누구이며, 살아남을 국가는 몇이나 될까?

1) 해럴드 L. 서킨 외, 『글로벌리티』, 김광수 옮김, 위즈덤하우스, 2010, 11쪽.

세계경제의 계속 성장이란 기획이 과연 가능한 정책적 이념이며 불변의 이론이라도 되는 것인가?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늘 음지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변영이 있는 곳에 늘 비참이 따르기 마련이다.²⁾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삶을 통해 터득한 지혜요, 사회나 국가 운용에 있어서도 정로(正路)가 아닌가 싶다. 양지와 음지, 변영과 비참은 특히 한 국가를 통치하는 위정자에게 있어서는 결코 분리될 수 있는, 분리되어도 무방한 둘이 아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도 복지를 호소하는 노인도 다 같은 국민이기에 둘 다를 공히 살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야를 넓혀보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글로벌 사회정의의 실현, 인문적 윤리의 관점에서든 역시 양지와 음지, 변영과 비참은, 비록 그 형태나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오직 성장’이란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Economy)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제일 과제’라 할 수 있다.

21세기가 포문을 열면서 두 번째 기표로 급부상한 것은 ‘문화’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문화를 세속화시키는, 즉 산업화하여 상리(商利)를 취하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 제국(諸國)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산업이나 영국의 창조경제산업 등이 바로 문화산업의 선도적 모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한류로드’나 ‘문화융성’, 중국의 ‘문화강국’이나 ‘창의산업’도 무너만 다소 다를 뿐 모두 문화를 기저(基據)로 성장경제를 이끌어보겠노라는 것이 속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화는 ‘오직 성장’이란 첫 번째 기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잠시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 모름지기 문화는 신자유주의자, 글로벌행위자,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업화나 상품화와 같은 경제적 시스템에 예속되거나 기생

2) 파스칼 브뤼크네르, 『변영의 비참: 종교화한 시장 경제와 그 적들』, 이상실 옮김, 동문선, 2003 참조.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더욱 문화는 다양한 문화상품들과 같이 물질적인 것을 대표하지도 않으며, 시장에서의 거래품이나 매매의 대상일 수도 없다. 만일 우리가 문화를 거래품이나 매매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문화는 당연 산업화되고 상품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에서 자양분을 얻고 유지되는 문화를 거래나 매매의 대상으로 여길 사람은, 온 세계(every local states)를 먹이로 여기는 자, ‘하얀 가면’을 쓴 신자유주의자들 말고는 없을 것이다.³⁾ ‘평평한’ 백지 위에 세계사를 성장경제를 중심으로 재기술해야 한다고 믿는 자들 말고는 없을 것이라 뜻이다.⁴⁾ 바로 여기에 (타)문화나 (타)국가에 대한 접촉과 교류, 대화와 이해의 역설, 즉 문화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Culture)의 공공연한 비밀이 숨어 있다.

지구촌이 정치·경제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울퉁불퉁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의 개입가치(the intervened value)는 이렇듯 늘 피개입 국가 및 피개입 문화권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특권을 전유(專有)한다.⁵⁾ 상대 국가, 상대 문화와의 접촉과 교류, 대화와 이해는 전적으로 그들 개입하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접촉이고 교류일 뿐이다. 대화나 이해도 ‘말 위에 말을 얻는’ 기만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위 보드리야르 식의 ‘문화의 민주화’ 명제가 문화의 산업화와 상품화, 문화의 콘텐츠화, 문화의 융복합화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⁶⁾ 그에 따르면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곧 ‘문화(상품)’이다. 역설적으로 말해 ‘상품화된 문화’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자들은 소비사회의 낙오

3) 기 소르망, 『진보와 그의 적들』, 이진홍·성일권 옮김, 문화과 인식, 2003, 308쪽 이하 참조.

4) 토머스 L. 프리드먼, 『로드 그란: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최정임 옮김, 21세기북스, 2008 참조.

5) 김성해·이동우, 『세계는 울퉁불퉁하다』, 민음사, 2009; 박치완, 「개입가치로서 공공선과 그 이면」, 『해석학연구』 제34집, 2014 참조.

6)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이상실 옮김, 문예출판사, 1992 참조.

자로 전략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대의 환자’로 홀대 받게 된다.

21세기를 견인하는 세 번째 기표(첫 번째, 두 번째 기표와 쌍생아 격이기도 하지만)는 지식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Knowledge)가 아닐까 싶다. 주지하듯 경제의 세계화는 전 지구촌 국가를 상대로 경제와 금융의 단일시스템화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문화에 이어 지식까지도 그들이 통제·관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기준,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나 플랫폼 내에서 유통·소비되기를 강제한다는 데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란 그러나 줄리앙의 지적에 따르자면 획일화(uniformization)의 이명(異名)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⁷⁾ 경제-문화-지식의 단일-획일적 운영(유통)시스템을 요구한다는 것은, 푸코가 일찍이 경고한대로, 필경 감시와 처벌을 위한 병략(兵略)과 다를 바 없다.⁸⁾ 필자가 『지식의 세계화에 대한 재고』에서 경제나 문화의 세계화 못지않게 지식(언어)의 세계화를 경계해야 할 때라고 역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⁹⁾

그렇다면 경제의 ‘오직 성장’, 문화의 산업화와 상품화, 지식의 세계화는 각기 독립독행(獨立獨行)할까? 아니다. 이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존재한다. 그것은 주지하듯 디지털 기술이다. 디지털 기술은 그러니까 21세기를 희망과 꿈, 편이나 행복 및 평화를 온 인류가 공유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 지배라는 미로(迷路)로 현대인을 도유(導誘)하는 네 번째 기표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디지털 기술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마치 21세기의 과학이자 효율성의 상징으로 통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이렇게 많은 장소가 누구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지배력(power)을

7) François Jullien, *L'écart et l'entre. Leçon inaugurale de la Chaire sur l'altérité*, Galilée, 2012, 46쪽 참조.

8) 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Gallimard, 1975 참조.

9) 박치완, 『지식의 세계화에 대한 재고』, 『해석학연구』 29집, 2012 참조.

가진 적이 결코 없었다.”¹⁰⁾ 그것도 “완전히 글로벌(fully global)”한 차원에서 말이다.¹¹⁾

필자가 ‘디지털 기술’을 감히 21세기의 ‘절대타자’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기술이 인간을 조정하는 기술제일주의 시대가 되어 모든 것이 기술적 관리와 통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신기술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환원주의적 문화 및 지식의 획일화 과정,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작금의 ‘디지털제일주의’는 과연 미트나 코헨의 제안대로 지구촌의 미래와 지구촌 시민을 위한 장미 빛 청사진이라 믿어도 좋은 것일까? 하지만 이들과 반대로 기의보는 디지털 신기술을 “시장의 합리적 체국주의”를 앞당기는 주력부대일 뿐 문화나 지식, 휴머니즘이나 세계평화 등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한다.¹²⁾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신기술 역시 “경제지배(écorègne)”¹³⁾에 최종 목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4개의 치유 불가능한 기표가 사방(四方)을 장악한 상황에서 지구촌 시민들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하는, 바로 그런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해 있다. 어찌해야 할까? 수종병(水腫病)에 걸린 환자가 몸에 해롭다는 물을 계속 마셔대듯, 우리도 스스로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자각증세나 의사의 진단 없이 계속 경제·문화·지식·기술 초강국들이 주문하고 요구한대로 꼭두각시 춤을 추어야 할까? 필자가 본고를 기획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상의 4개의 기표를 가로지르는 것이

10) Eric Schmidt and Jared Cohen, *The New Digital Age. Reshaping the Future of People, Nations and Business*, John Murray, 2013, 4쪽.

11) *Ibid.*

12) Jean-Claude Guillebaud, *La refondation du monde*, Seuil, coll. «Points», 1999, 239쪽.

13) *Ibid.*, 97쪽.

‘단일보편문화론’이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글에서 특수복합문화론을 제안해보려 한다.¹⁴⁾

특수복합문화론은, 이미 제사를 통해서도 암시한 바 있듯, 다양성과 다원성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신지식이론이자 글로벌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문화의 해석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작금의 미국몽, 중국몽과 같은 문화제국주의의 부활·확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로컬문화를 더욱 활성화시켜 문화다양성이란 시대의 과제를, 단지 국제적 협약을 성사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볼까 한다.

2. 단일보편문화론에서 특수복합문화론으로

세계는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것이 세계의 진상(眞像), 즉 본래면목이다. 그렇게 울퉁불퉁한 공간에 공자도 살았고, 맹자도 살았다. 플라톤이며 헤겔도 각기 그들이 태어난 장소에서 고유한 실존적·문화적 삶을 누렸고, 각이한 나름의 행복을 찾았을 것이다. ‘그곳’에 성경을 제일 가치로 여기는 집단도 있겠지만, 탈무드나 코란 또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삶의 이정표로 삼는 또 다른 집단도 존재한다. 기독교가 서구의 대표 종교라지만,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도 다 같이 나름의 초월 세계를 제

14) 단일보편문화론 하나의 문화(One culture)가 유일·절대적인 것이라 믿고, 이를 통해 타문화를 전복시키는(verser), 틀피즈의 표현을 차용하자면 탈영토화시키는(déterritorialiser) 것으로써 그동안 서구유럽에서는 이를 보편적인 것(Uni-versel), 보편주의(universalisme)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다. 그 폐단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우리는 이러한 단일화(unification), 획일화(uni-formisation), 보편화(uni-versalisation) 등이 이질적인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완전통제사회(monolithic society)의 추진력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경향은 문화 영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지식,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본고에서 ‘특수복합문화론’의 형세도를 제안해보려는 것이다.

시하면서 신도들로 하여금 삶의 고통을 경감케 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회성(回省)케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다르지 않는 일종의 ‘문화체계’이다. 심지어는 무속이나 샤머니즘, 아니 우상숭배라 할지라도 그 역할 면에 있어서는 이들 소위 ‘고등종교’와 추구하는 크게 바가 다르지 않다. 우리가 문화를 논하고 연구할 때 잊어선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문화적 다양성’, 이는 곧 삶의 다양성, 가치관 및 세계관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다양성’ 개념은 그동안 서구유럽 중심의 단일보편문화론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서구유럽 바깥 세계에 안겼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단일보편문화론의 현대판이라 할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유형의 제국주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 천원(泉源)은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발원된 것이다. 작금의 경제전쟁, 문화전쟁, 기술전쟁 모두가 이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지지하는 자들에게 70억 인구 중 거의 3억에 가까운 수가 하루에 2달러 이하의 돈으로 한 끼만을 먹으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이 눈에 포착될 리 없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지구촌을 무대로 시장에서 패권을 쥐는 것이다. 부의 분배는 안중에도 없으며 더 많은 부를 독점하려고 안달이다. 해서 이들은 “ [신] 자유주의만이 ‘유일사상’ ”이라 믿는다.¹⁵⁾ 이들 이야말로 경제라는 단일 표준으로 세계시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일보편문화론자라 아니할 수 없다.

K. 머피드가 핵심을 지목하고 있듯, 인간의 타고난 “승고한 이성(a noble reason)”을 재작동시켜 시장경제시스템에서도 윤리적 책임의식을 물을 때가 된 것이다.¹⁶⁾ 어떤 특정 개인이나 기업 또는 어떤 특정 국가

15) 도미니크 펠리용, 『신자본주의』, 서익진 옮김,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6, 41-42쪽.

16) Kamran Mofid, “Globalization for the Common Good”, *Globalization & Identity*, New Brunswick & London: Toda Institute for Global Peace and Policy Research, 2006, 27쪽.

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즉 나와 타자를 아우르는 지구공동체의 미래를 염려하는 윤리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뜻이다. 설사 그것이 손가락으로 하늘 찌르기에 그친다 할지라도, 이 방법 말고는 지구공동체가 요구하는 이타주의와 연대, 포용과 공유, 우애와 정의는 앞당길 수 없을 것이다. 강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단일보편문화론으로부터 깨나서 세상을 보라. 하나의 유일절대보편문화는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존재해서도 안 된다. 모든 문화는 자기 독립적으로 기나긴 역사 속에서 성육(成育)해온 것이며, 고유한 방식으로 자율성을 유지한 채 독특한 삶의 스타일(life-style)과 가치체계(value system)를 창조해왔다. 이것이 문화의 본바탕이고 문화의 ‘자연생태계’이다. 또한 모든 문화는 기본적으로 지리적·풍토적 경계를 바탕으로 형성·전승되는 것이기에 자신의 경계 밖을 넘나든다는 일이 상품이나 기술 또는 화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 더 참된 것, 더 우월한 것, 더 문명적인 것이라고 위계를 설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우며, 위계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화적 다양성 시대에 반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문화뿐 아니라 사고패턴이나 우주론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¹⁷⁾ 그렇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위계’라는 평가어와 짝하지 않는다. 재삼 강조하지만 문화는 세계가 울퉁불퉁한 것 이상으로 다양한 색채로 대변된다. 다시 말해 지구상엔 ‘하나’의 문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가 등가치로 공존한다. 그런데도 만일 우리가 하나의 문화, 즉 유일절대보편문화를 여전히 머리에 이고 산다면, 이는 줄리안의 언급대로라면, ‘죽은 문화’를 섬기고 있다는 증거나 다름없다. 동서비교철학자 줄리안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미 정형화된 단일보편문화, 그러한 문화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문화

17) François Jullien, *De l'universel, de l'uniforme, du commun et du dialogue entre les cultures*, Fayard, 2008, 237쪽 참조.

를 살아 생동하는 ‘유기체’가 아니라 ‘죽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

“어떤 문화(une culture)가 정형화된 문화(la culture)로 바뀌면, 즉 ‘단수’가 되면, 이는 그 문화가 곧 한 국가의 문화 또는 전 세계의 문화라는 것인데, 이는 더 볼 것도 없이 죽은 문화(culture morte)이다.”¹⁸⁾

필자의 논점과 줄리안의 위 인용문을 연결시켜보면 결국 현재의 경제의 세계화라는 범식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미국 주도의 할리우드 문화 또는 코카콜라 문화는 이미 ‘죽은 문화’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즉 ‘글로벌 문화’도 이미 ‘쇠락의 길로 접어든 문화’일 뿐만 아니라 “문화에 있어 글로벌 문화”는, 코로보프의 지적처럼, 실제 “존재한 적이 없다.”¹⁹⁾ 물론 피터스톤 같은 학자는 글로벌 문화를 ‘모든 국가와 로컬 문화의 경계를 초월하는 문화’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⁰⁾ 하지만 이러한 다소 철지난 주장은 로컬 문화의 유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세계화의 과정에서 글로벌화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화의 결과가 얼마나 비인도적이고 문화다양성의 적인지를 피터스

18) *Ibid.*, 223쪽.

19) Vladimir Korobov, “Models of Global Culture”, *Globalization & Identity*, New Brunswick & London: Toda Institute for Global Peace and Policy Research, 2006, 50쪽.

20) Mike Featherstone, *Undoing Culture: Globalization, Postmodernism and Identity*, Sage Publications, 1995, 6쪽: “세계화 과정은 문화에 대한 2개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하나는 특수한 문화(a particular culture)가 자신의 경계를 초월해 지구촌(the globe) 차원으로까지 확대된 경우다. 이 때 이질적인 문화들은 우세한 문화(a dominant culture)에 통합되고 합병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우세한 문화는 전 세계에 퍼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문화들에 대한 응축(압축)의 이미지이다. 세계는 단일한 공간(singular space)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한 장소(a place)에서 공통문화(commom culture)에 흡수(동화)되어가고 있다. 글로벌 문화는 한 국가의 문화가 광범위한 국가(영역)에서 공식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톤은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 요인즉 피터스톤의 주장대로 모든 로컬 국가에서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글로벌 문화가 로컬 문화를 초토화시키고 획일화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 이에 저항할 명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문화의 세계화가 “자유적 적(enemies of freedom)”²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거부할 정당성이 있다.

코로보프와 피터스톤의 주장은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상반된다. 접점을 찾을 길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 단일보편문화에 대한 믿음이 야기한 다양성의 파괴에 있다. 민주주의, 세계평화, 인권 등을 앞세워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지구촌에서는 민간인 학살 전쟁이 빈발(頻發)하고 있다. 그 배후에 과연 어떤 세력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²²⁾ 아래에서 라파이유를 언급하며 다시 논의하겠지만, 미국은 그들이 말하는 ‘미국인의 꿈’, 즉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인권을 온 인류가 공유할 것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강권(強勸)하고 있다. 하지만 그 꿈은 결코 “온 인류를 위해 선한 것(common good for all)”이 아니라 오로지 “시장(marketplace)”을 위한 것이며²³⁾,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통합과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²⁴⁾ 신자유주의적 단일보편문화의 침범이자 목자인 미국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타국가, 타문화를 감싸 안기보다 자신들의 온갖 개입이 정당할 것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취지에서 버만이 ‘미국 문화의 몰락’을 널리 공표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21) Vladimir Korobov, *op. cit.*, 46쪽.

22) Joseph Samuel Nye,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참조.

23) Kamran Mofid, *op. cit.*, 29-30쪽 참조.

24) “세계무역을 통한 세계평화”라는 사훈(社訓)을 내걸고 있는 IBM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Jean-Pierre Wamier, *La mondialisation du monde*, La Découverte, 2004, 92쪽.

다.²⁵⁾ 버만과 동일한 맥락에서 몬비오도 새로운 세계질서를 지구민주주의, 공정무역에 준해 실행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시대에는 어떤 것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예전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은 20세기에 몰락했고, 이 세기 [21세기] 에 확립됐던 공식적인 제국주의체제도 끝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일부는 이를 역사의 종말 내지 자본주의와 그에 수반된 이데올로기, 즉 시장근본주의의 결정적 승리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세계질서조차도 이미 노쇠의 전형적 징후를 보이고 있다.”²⁶⁾

여기서 우리는 단일보편문화론의 초기 전파자이자 1993년 유럽연합의 탄생과 더불어 더욱 더 결속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럽몽은 두말할 것도 없고²⁷⁾, 작금의 중국몽, 일본몽 그리고 심지어는 한류몽까지도 기본적인

25) 관련 연구는 많은데, 몇 권의 참고문헌만을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리스 버만, 『미국 문화의 몰락』, 심현식 옮김, 황금가지, 2002; 이매뉴얼 윌러스틴, 『미국 패권의 몰락』, 한기욱 외 옮김, 창비, 2004; 조지프 스티글리츠, 『세계화와 그 불만』, 송철복 옮김, 출판사중연구원, 2002.

26) 조지 몬비오, 『도둑맞은 세계화』, 황정아 옮김, 창비, 2006, 235-236쪽.

27) 유럽몽을 미국몽과 비교하면서 유럽이 마치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기라도 할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리프킨의 다음 언급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꿈을 꾸지 않는 국민에게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반성케 하는 대목이다: “The American Dream puts an emphasis on economic growth, personal wealth, and independence. The new European Dream focuses more on sustainable development, quality of life, and interdependence. The American Dream pays homage to the work ethic. The European Dream is more attuned to leisure and deep play. (...) The American Dream is wedded to love of country and patriotism. The European Dream is more cosmopolitan and less territorial. (...) Americans tend to think locally, while European’s loyalties are more divided and stretch from the local to the global. The American Dream is deeply personal and little concerned with the rest of humanity. The European Dream is more expansive and systemic in nature and, therefore, more bound to the welfare of the planet.” - Jeremy Rifkin, *The European Dream*, The Penguin

로는 단일보편문화(uni-verse-culture)의 외적 확장에 그 표점(標點)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단일보편문화에 대한 환상은 기본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문화들’, 즉 특수복합문화(pluri-verse-cultures)를 몰각하지 않고는 취할 수 없는 태도 할 수 있다. 문화들 간의 ‘간발적 교류’의 문이 여전히 쾅쾅 닫혀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²⁸⁾

‘문’은 주지하듯 그 본질이 닫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열림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중 하나를 문의 본질로 택일하게 되면 그 순간 이미 문의 열리고 닫히는 이중적 본질을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만다. 단일보편문화를 위한 세계화는 그러니까 간발적 문화교류의 이중적 특질 자체를 철저히 부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피터스톤이 그랬듯,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우세한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퍼트리려는 것만이 단일보편문화론자들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 필자가 「F. 줄리앙의 신문화론과 글로벌 공공선」이란 논문에서도 강조한 바 있듯, 문화들 간의 ‘간발적 교류’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간발성은 당연 간수성(間受性)과 짝을 이룬다. 간발수해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이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화적 교류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운동경기나 상거래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지역세계화’는 로컬들과 글로벌(세계)이 간발수하며 서로에게서 ‘문화적인 것’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할 때 그 경계가 넓어지고 관계가 심화될 수 있다.”²⁹⁾

물론 각 문화가 자신들만의 배타적 몽상에 젖어 있는 것은 자유다. 여

Group, 2004, 13~14쪽.

28) 박치완,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의 새로운 지형도: 동서사상의 간발적(間發的) 교류를 위한 시론」, 『철학논집』 제38집, 서강대 철학연구소, 2014 참조.

29) 박치완, 「F. 줄리앙의 신문화론과 글로벌 공공선」, 『동서철학연구』 제37호, 2014, 345쪽.

기에 외부적 시선이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할 개재는 못된다. 이러한 배타적 몽상이 속지(屬地)를 벗어나, 다시 말해 타문화에 일방적으로 발신되어 자신들에게 ‘동화(assimilation)돼라’고 개입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는 비롯된다.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꿈까지 개입하려는 발신자에게도 문제는 있지만, 외부에서 개입된 꿈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는 수신자에게도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문화적 자율성도 문화적 자존심도 없는 나라라면, 이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런 국가에서는 유럽몽, 미국몽, 중국몽이 단지 외래적(外來的)인 꿈에 그치지 않고 수신된 장소를 발신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철저히 오염시키고 탈영토화시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³⁰⁾

단적으로 말해 단일보편문화의 확대 과정은 이렇게 상대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입하기만 한다. 돌려 말해 문화들 간에 간발하고 간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相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며, 이렇듯 발신자 위주의 문화지배, 즉 문화의 세계화가 문화교류의 일반적 양상이다.³¹⁾ 게다가 21세기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문화적 영토들이 단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재삼재사 탈색되고 있으며, 탈영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교류나 접변 또는 전과 과정이 호혜적인, 즉 간발수적 교류보다 발신자 중심문화로의 동화만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펴고 있는 현금의 미국몽을 한 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몽, 소위 <American Dream>, <American Standard>, <American Style>은 식음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소변기며 세면대 시장까지도 잠식한 상태다. ‘예술로 승화

30) Clotire Rapaille, *The culture code*, Random House of Canada, 2007; Sujian Guo, Baogang Guo, *Greater China in an Era of Globalization*, Rowman & Littlefield, 2010; 최광식, 『한류로드: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합』, 나남, 2013 참조.

31)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박홍규 옮김, 문예출판사, 2005; 임동욱, 『세계화와 문화제국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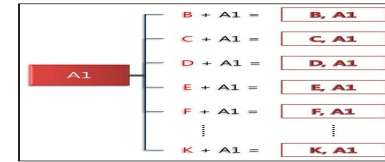
된 세계 욕실문화의 표준화'라나? 대한민국에도 이미 American Standard Cos라는 지사가 강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대도시에서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American Standard>의 끝은 어디일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와 같이 참담하게 외래문화에 의해 퇴염(退染)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경제약소국들은 미국몽(대신)꾸기에 혈안이 돼 있으며, <American Standard>를 <Universal Standard>로 오인하는 것도 모자라 자발적으로 정치·경제·군사·외교적으로 미국에 종속되기를 목매는 국가도 적지 않아 보인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미국인의 꿈을 마치 자신들을 위한 '신세계의 꿈'인냥 착각하는가 하면, 미대통령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모세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해줄 것처럼 착오하기도 한다.³²⁾ 그뿐인가. 설상가상으로 라피유유는 자신의 책에서 미국을 일러 "꿈의 결과요 꿈의 생산자"라고까지 송찬(頌讚)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공(誇矜)은 주위세계를 전혀 둘러볼 줄 모르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Cyclops)가 아니고서는 내뱉을 수 있는 언사가 아니다. 전 세계인의 (꿈의)지배자라도 되는 미국인들은 일종의 '종족의 우상'에 빠져 있다고나 할까.

여기서 우리는 라피유유가 언급한 '꿈'이 인류나 지구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히 <Amerca>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 만일 이상과 같은 논리에 미국몽이 기초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일방향적 발신에 미국몽의 본질(아니한계)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과는 다른 국가, 다른 문화들과의 교류

32) Clotaire Rapaillle, *op. cit.*, 195~196쪽: "The [American] dream of explores discovering the New World. The dream of pioneers opening the West. (...) We created Hollywood and Disneyland and the Internet to project our dreams out into the world. We are the product of dreams and we are the makers of dreams. (...) We see the American president as Moses because we dream that someone can lead us to an even better America. (...) We want to believe we are forever young and that we never truly have to grow up."

는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게 미국의 꿈, 미국의 문화코드를 하나의 '수고로운 부담'으로 떠안고 있다는 사실이 인간의 이성 능력을 믿어야 할지 의심케 한다. 물론 자국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켜보겠다는 이유로 미국을 모



<그림1>: 경제·문화·지식의 세계화 전개도

델로 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의 꿈이 한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서 결과적으로 서로 간 공통집합이나 질적 결합도 형성하지 못한 채 A1에 해당하는 미국만 그 세력을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소위 '교류-게임'이 끝난다는데 있다. A1의 개입의 결과는 당연 B<A1, C<A1, D<A1, E<A1, F<A1, K<A1 상태로 종결되고 만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출발부터 불평등한 게임은 최종적으로 불균형적 합집합의 형태로 전략해 B, C, D, E, F, K가 마침내 A1에 의해 탈영토화의 과정을 거친 후 A1에 동화되는 수순을 밟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할 단일보편문화적 경제 및 문화 세계화의 악폐(惡弊)다. 필자가 그동안 여러 논문에서 세계화는 곧 미국화와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목해온 것도, 또 문화상대주적, 지역주의적 입장에 서면서까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문화'라는 정체불명의 개념에 대해 각성할 것을 촉구해온 것도, 그리고 지역세계화,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천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해온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다.³³⁾ 해서 필자는 이 자리에서 새삼 독자들과 함께 다음 질문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미국문화는 진정 지구촌을 대표하는 유

일보편문화이며, 글로벌 문화인가? 미국문화는 모든 로컬문화들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제일의 문화인가? 하지만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 단수의 제일문화(culture première)는 지구촌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문화는 “무한하게 특수한 조건들의 총합”으로 구성돼 있다.³⁴⁾ 요인즉 지구상엔 다양한 복수의 문화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각기 “문화적 고유성(le propre du culturel)”³⁵⁾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문화도 결국은 그들의 방식대로 ‘특수하게 구성된 지역문화’에 불과하다. 해서 우리는 미국문화를 비롯해 그 외의 문화들의 고유성, 특수성을 편견 없이 심찰(審察)할 필요가 있다. 요는 각 문화의 코드를 깊이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³⁶⁾ 부연컨대 미국문화가 전 세계의 문화들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문화가 다른 문화들에 비해 우위에 있다거나 글로벌 공공선의 실천을 위해 앞장서는 문화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만이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유일한 문화라는 자만심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³⁷⁾ 인류에게 꿈과 희망, 자유와 박애를 선사할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America is Unique)”며,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이념을 전파한 나라는 미국이 “최초”라며 망발을 멈출 줄 모른다.³⁸⁾ 평생 미국 이외의 국가를 구경한 적도 없는 사람처럼 미국문화를 인류 제일의 가치로 착오하는 미국 국적의

33) 필자는 <glocalization>에 대한 우리말 번역어가 세방화, 지구지역화, 세계지역화 보다는 ‘지역세계화’가 어의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 이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대의 철학」, 『철학과 문화』 제2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연구소, 2012, 236~237쪽 참조.

34) François Jullien(2008), *op. cit.*, 226쪽.

35) François Jullien(2012), *op. cit.*, 24쪽.

36) 박치완, 김평수 외, 『문화콘텐츠와 문화코드』,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1 참조.

37) Clotaire Rapaille, *op. cit.*, 196쪽: “We have become the most powerful, most influential culture in the world because we believe in the power of dreams.”

38) *Ibid.*, 198쪽.

프랑스인의 다음 언급을 더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결코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철학을 세계의 다른 지역(the rest of the world)에 장려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물론 우리는 항상 타자들의 문화(the cultures of others)를 존중해야 하고, 그들 고유 코드를 위반하는 문화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낙관주의와 미국의 꿈을 공유해야 한다.”³⁹⁾

필자가 라파이유에게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인 것인가? 하지만 필자는 솔직히 라파이유의 이와 같은 다분히 외눈박이식 행작(行作)에 대해 이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비적이며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의, 아니 ‘그들’의 독단이 <America>라는 지리적 영역 안에서만 회자되는 것으로 그쳤으면 싶다. 그들만이 민주-평화적이고, 문화-문명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란 것인가. 미국 밖의 국가나 문화들은 그들이 설계해놓은 ‘아메리카형 유토피아’에 의해 개조되어야 한다는 환상에서 하루 속히 벗어났으면 한다. 왜냐하면 자기 밖의 존재, 즉 타자와 타문화를 이해해보려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미국귀일(제일)주의(uni-verse-american culture)에 빠져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국가도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화두인 다문화공생의 가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이다. 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도 ‘나’와 ‘너’를 배제의 논리로 구분한 다음 다시 유유상종하듯 재결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런 분리 이전에 각 문화의 본래적 존재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식전환이 급선무다. 모든 인간은 각기 주어진 문화적 자양분을 통해 독립적으로 성육(成育)된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각 로컬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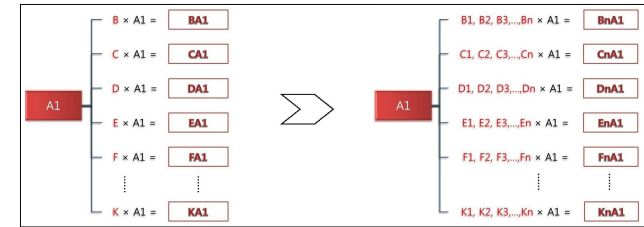
39) *Ibid.*

는 바로 그런 독립적 존재자들의 총화이다. 때문에 라파이유의 말대로 오직 ‘규모’와 ‘크기’만을 강조하는 “미국식의 삶의 방식(the American way of life)”이 “모든 인간에게 선한(the good of all men, all people) 것”⁴⁰⁾이란 수사는, 불륨의 정확한 지목하듯, 더 이상 지구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념이 아니다. <미국문화 = 보편적 문화 = 글로벌 문화>라는 등식은 권력·지배의 강화 논리일 뿐 진정한 의미의 문화의 논리, 공존의 논리라 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이라는 유일보편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백색·백인의 논리이지 결코 특수복합문화를 인정하는 다채색의 공존·상생의 논리가 아니다. 이러한 권력/지배의 논리를 통해 타자, 차이를 억지로 꾸며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등의 이념을 앞세워 타자와 차이를 문명화시켜야 한다거나, 계몽시켜야 한다는 구시대적 편견은 이제 과감히 버릴 때가 되었다.

재삼 강조하지만 문화는 헛된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 계몽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모든 문화가 각기 제 자리(sa juste place = localité)를 지킬 때 각 문화의 고유성은 지속도 가능하고 성육도 기대할 수 있다. 다른 문화들과 간수발적으로 교류하며 진정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은 ‘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될 때가 아니고서는 기대할 수 없다. 모름지기 문화는 형식과 물질의 층위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정신과 가치의 체계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모든 문화는 각기 나름의 고유한 가치 및 의미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바로 그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고, 고유성과 특수성을 모태로 하는 문화들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다름’이라는 가치를 공분(共分)하면서 간수발적으로 ‘문화’의 공유 지평을 확대·심화시켜가야 한다.

아래 <그림2>는 필자의 이러한 간수발적 문화론의 인식론을 표로 제시한 것이며, 이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연구에 있어 긴요한 이정표 역할

40) Allan Bloom,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New York: Simon & Schuster, 1987, 191쪽.



<그림2>: 지역세계화 전개도

을 하리라 본다. 요는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발신문화(A1)가 수신문화인 교류 대상문화들(B, C, D, E, F, ... K)과 접목·접촉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질적으로 결합해야(BA1, CA1, DA1, EA1, FA1... KA1)만 문화들 간에 내재된 거리, 이격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수신문화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과 발신문화가 <BnA1, CnA1, DnA1, EnA1, FnA1... KnA1> 상태로 결합될 때 소위 ‘지역세계화’ 단계로 진입한 문화 교류 형태라 할 수 있다. 지배가 아니라 공유가 핵심인 지역세계화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각 문화들 또한 <Bn, Cn... Kn>에서처럼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서로 다른 문화들 간의 교류는 이렇게 더할 수 없이 복합적 요소들 간의 간발수성에 의해 중층적으로 진화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개화(開化)해가는 것이다. 발신자의 문화도 수신자의 문화도 이질적 요소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에, 궁극적으로는 아래 <그림3>에서 보듯, <BnAn, CnAn, DnAn, EnAn, FnAn... KnAn>의 상태가 되어야 하며, 바로 이때를 우리는, 그 실현 여부는 차치물론하고, 가장 이상적인 문화교류, 문화융합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본 논문을 통해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간수발적 문화교류, 지역세계화(GLocalisation), 특수복합문화론(les pluri-verses de

cultures)의 공간이다.

글로벌 시대인 21세기는 우리에게 신신(申申)이 분배, 공생, 평화, 인권, 정의, 소통이라는데 화두를 추거하고 있다. 왜 ‘신신이’인가? 대답은



<그림3>: 지역세계화 전개도2

간단한데서 찾을 수 있다. 분배, 공생, 평화, 인권, 정의, 소통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줄리앙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빌려볼까 한다. 그에 따르면 분배, 공생, 평화, 인권, 정의, 소통은 기본적으로 타자를 전제한다. 타자를 전제하고 있기에 간수발적 교류는 필수적이다. 간수발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마침내 우리는 나/타자, 지배/종속, 로컬/글로벌 양간의 공통세계(le monde commun)를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공통세계가 나를 나로, 타자를 타자로, 지배자를 지배자로, 피지배자를 피지배자로, 로컬문화를 로컬문화로, 글로벌 문화를 글로벌 문화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자 다름과 이질성을 조율케 하는 인식의 저울추 역할을 한다.

줄리앙이 양자가 대면하는 일차적 단계로 “눈맞춤(un dévisagement réciproque de l’un par l’autre)”⁴¹⁾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줄리앙의 제안대로라면 그 때서야 비로소 타자를 통해 자신을, 타문화를 통해 자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된다. 이렇게 ‘문화들’은 긴장과 설렘

41) François Jullien(2012), *op. cit.*, 34쪽.

속에서 서로 마주하며, 상대 문화의 심층에 한발 한발 단계적으로 접근해가는 것이다. 자문화와 타문화를 “구분(distinction)”하여 ‘능대의 눈’을 부라려온 단일보편문화론에 “반성 공간(un espace de réflexivité)”⁴²⁾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줄리앙이 제시한 ‘공통세계’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자문화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타문화적 요소들, 즉 이질적인 것(l’hétérogène)과의 끝없는 교류를 통해 그 거리를 줄여가는 것이 관건이다. 권력/지배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타문화를 인정하려들지 않았던 단일보편문화론이 그동안의 폐단에서 벗어나려면 타문화와 불가피하게 주어진 “거리(distance, écart)”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⁴³⁾, 바로 그 거리를 반성의 기회로 삼음으로써 “자신을 탐진하고 경작하는(s’explorer et s’exploiter)” 것이 줄리앙은 강조한 신문화론의 핵심이다.⁴⁴⁾

이런 측면에서 공통세계는 그 표점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줄리앙이 간이(簡易)한 보편주의나 나태한 상대주의를 자신의 공통세계에 기초한 신문화론과 구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⁴⁵⁾ 공통세계는 기본적으로 로컬문화의 부활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으며, 경제-문화-지식-기술의 세계화를 저지·극복할 수 있는 ‘지도 이념’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현실을 보라. 대부분의 국가가 글로벌 공공선의 실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국, 자문화의 이익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 결과 타국가, 타문화와의 관계는 호혜(互惠)의 관계가 아닌 상살(相殺)의 관계로 악화돼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유엔이 앞장서서 글로벌 공공약을 자행한 이라크 사태나 시리아 사태를 보라. 글로벌 공공철학을 선도하고 있는 나오시가 국

42) *Ibid.*, 31쪽.

43) *Ibid.*, 32쪽.

44) *Ibid.*, 37쪽.

45) *Ibid.*, 43-45쪽 참조. 줄리앙은 이와 같은 문화보편주의나 문화상대주의 폐단을 “서로가 눈을 맞추지 않고, 자기반성을 하지도 않으며, 노력하지도 안은 채 메마르고 완고한 동일성만을 재생산할 뿐”(ibid., 45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주의와 지역주의, 글로벌 자유주의와 로컬 보호주의, 로컬리티와 글로벌리티 간의 이분법적 갈등을 극복·지양하고 양자를 재매개하기 위해 ‘자기-타자-세계’론을 제안한 것도⁴⁶⁾, 윌러스틴이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중도론(unexcluded middle)”을 통해 서구유럽적·단일보편적 획일문화론의 왜곡된 개입의 정당화로부터 벗어나 보편적 보편주의(universal universalism)를 지향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⁴⁷⁾,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줄리앙의 공통세계론과 논의 문맥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취지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공공철학, 중도론, 공통세계론을 가로지르는 중심 이념이 뭘겠는가? 그것은 서로가 상대를 백안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눈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진정으로 상대를 대화상대자로 맞이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타자, 타문화와의 새로운 눈맞춤, 새로운 대화를 위해서 어쩌면 양자의 간극, 즉 사이가 더 떨어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이가 존재해야, 다시 말해 ‘무지의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식해야, 각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상대를 새롭게 보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가 존재해야 건네주고 건네받을 수 있는 공간이 예비된다. ‘사이’를 본고의 취지와 연계시켜보면 ‘글로벌’로 재정의될 수 있으며, 결국 로컬과 글로벌의 공존(coexistence of the local and the global)이 목표인 바 인간도 ‘간수발적 동물’로 거듭나야 하며, 이 때 비로소 단일보편일문화(uni-verse-culture)의 신화에서 벗어나 로컬문화도 부활시키고 글로벌 공공선도 실현하는 특수복합·복수공통문화론(pluri-commun-verse-cultures)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46) 야마와키 나오시,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성현창 옮김, 이학사, 2011, 197~215쪽 참조. 나오시는 자신의 글로벌 공공철학 방법론을 ‘이상주의적 현실주의’, ‘현실주의적 이상주의’라고 해명하고 있다(ibid., 215쪽).

47) 이매뉴얼 윌러스틴, *op. cit.*, 141쪽.

3. 한류로드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관인가?

간극, 거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체 밖에 있는 타자를 주체의 고정된 시선으로 포획해 이타성(l'altérité)이나 이질성(l'hétérogénéité) 등으로 계층하거나 아니면 훗설처럼 ‘다른 자아(l'autre moi)’로 타자의 본래성을 대상화·추상화시키지 않고 그 외재성(l'extériorité)을 주어진 상태 그대로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극, 거리를 기꺼이 수용하는 공간은 이런 점에서 푸코가 말한 ‘반공간(contre-espace)’과 의미를 공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푸코가 말한 반공간은 기존에 잘 정립된(정돈된) 공간에 ‘의의를 제기하는’ 공간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은 분명 아니다. 그가 헤테로토피아의 세 번째 원리로 제시한 바 대로 “서로 양립(兩立)이 불가능한 공간들을 실제 한 장소에 겹쳐 놓는 것”⁴⁸⁾이 관건인데, 특수복합·복수공통문화론 역시 이질적 타자들과 질적 결합으로 통해 공통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인 바, 일종의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분배, 공생, 평화, 인권, 정의, 소통이란 이 시대의 화두 역시 간극과 거리를 철저히 부인하는 <Uni-verse-culture>의 관점을 과감히 버리고 세계를 새롭게, 아니 울통불통한 그대로 바라보아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울통불통한 상태를 정리·정돈할 필요 없이 존재하는 상태로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 돌려 말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 인식 관점은 ‘늑대 눈’을 부라리며 동일성의 논리에 준해 이질적인 타자를 간리(幹理)하거나 통제하려는 헛된 꿈을 접고 <Pluri-verse-cultures>의 가능성을 채택(採探)할 때 비로소 다양성, 다원성으로 꽃필 수 있다.

본고의 논제, 즉 <글로벌 시대, 문화 해석의 새로운 지평>과 연관해 이제 남은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우

48)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4, 13~24쪽 참조.

리는 그동안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그렇다면 문자. “한국적인 것은 대체 ‘무엇’을 일러 하는 말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일러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직면한 한국인이려면, 거의 반자동적으로 단군신화, 백의민족, 탈, 한글, 한옥, 한강, 김치, 세종대왕, 이순신, 싸이, 박지성, 김연아, 새마을운동, 난타 등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한국적인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잠기다보면, 십중팔구 자신이 선택한 대답이 물음에 적중한 것인지 의심하게 되리라.

하지만 이 경우처럼 대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 있는 물음은 물음 자체가 이미 잘못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으로 물음이 제대로 제기된 것이라면, ‘가장 한국적인 것’에 대한 공의(公義)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그럴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은 ‘모든’ 한국인은 아니어도 최소한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이면 동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여론조사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더더욱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에서만 지지도가 높은 것이어서도 곤란하다.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야 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요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본고에서 이를 해결할 지면은 충분치 않다. 다만 한 가지를 제안한다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도 단일보편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는 선입관을 버리면 어떨까 싶다. ‘한국적인 것’이 ‘하나’일 수도 없지만, ‘하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 한국적인 것이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는 이미 여럿을 아우를 조건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가장 한국적인 것은 국내 홍보용보다 대한민국 밖, 즉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것을 일러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국가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목표 하에 ‘글로벌 시민의식고양’, ‘다문화사회 지원’, ‘한류확산’ 등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보고

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적 국가이미지, 즉 ‘브랜드 대한민국’은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기업이미지보다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외국인이 평가한 가장 한국적인 것 ‘하나’를 택발(擇拔)하지 못한 채 불행인지 다행인지 위원회는 막을 내린 바 있다.

한 축의 화살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겨냥할 수 없다. 실제 외국인이 선택한 ‘것들’은 하나로 동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그 중 어떤 것을 일러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 해야 할지? <South Korea>의 대외인지도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GNP와 비교해볼 때 상상 이상으로 낮다. 해서 ‘문화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는 정권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할 때라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 밖에서의 <South Korea>의 위상 제고는 더욱 더 절실해 보인다. Korea라는 국가브랜드의 대외적 선양(宣揚)은 어떤 정권이나 어떤 정당에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문화수용자를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소위 ‘한류’를 한국문화의 침병처럼 대외에 전파하겠노라는 우리 정부의 태도나 전략도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류로드’를 통해 전 세계로 한류상품을 수출해보겠다는 발상은,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세계가 그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주장할 수 없다. 요는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한 자세로 타국가, 타문화와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⁴⁹⁾ 이런 견지에서 보자면 국내의 유사세계화론자들은 필자의 다음 역문(逆問)에 대해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문화적 로컬리티는 소위 ‘글로벌 로드’에 의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파괴되었는가?

지구상에는 다양한 언어,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데, 경제영토처럼 문화영토, 지식영토마저 단일·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도 되는 것인가? 문화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49) 임동욱이 『세계화와 문화제국주의』에서 <한류와 문화제국주의>라는 소절을 할애한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미치지만 국가를 위해서도 대외적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이다. 세계화로부터 개인과 국가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문화이다. 개인과 국가를 성육시켜준 문화적 토양이, 수입수종이나 수입어종에 의해 자연생태계가 위협받는 것처럼, 외래문화에 의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을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⁵⁰⁾ 한류를 언급하면서 한국문화의 수출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외국문화의 들고 낚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는 들고 나면서 자-타문화가 글로벌화(globaliser)된다. 그리고 앞장에서도 강조했듯, 글로벌 시대의 문화는 타문화와의 상생이 궁극 목표여야 하기에 기본적으로 간발수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감히 말하지만 전 지구촌에서 널리 공유되고, 그래서 보편적이라 할 그런 문화는, 코로보프가 직시하고 있듯, 존재하지 않는다.⁵¹⁾ 부언컨대 모든 곳(everywhere)에서 모든 사람들

50) 다음 기사는 세계화에 함몰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통지하고 있다. “지난 3월로 월간 베스트셀러 20위에 한국문학이 한 권도 없는 상태가 5개월째가 됐다. 한국 독자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일이야 오래된 일이지만, 이제는 한국문학을 소멸시키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책이 팔리지 않아 전업 작가가 존재하기 힘들고, 이제는 가장 대중적인 소설조차 외국의 것을 번역해 읽어야 하는 상황이다.” - <책을 읽지 않는 나라, 작가가 사라지는 나라>, 《주간경향》, 2015년 4월 8일자 기사.

51) 코로보프에 따르면 속칭 ‘하이브리드 문화’는 글로벌 대중소비문화의 대표적 유형이다. 우리는 이 하이브리드 문화를 “로컬문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글로벌 상품과 동일시 할 때 생성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코로보프가 정식화한 대로 <hybrid = foreign + local>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식을 통해 그는 지금의 자본화된 미국문화가 제3세계에서 양산하고 있는 폐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들 [제3세계국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그들이 늘 소유해왔던 것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양하고 양육해온 환경,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제공했던 것을 더 이상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살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대로 유지해왔던 과학과 기술, 의학시스템과 건축, 천연의 주거지가 억압 또는 금지되거나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구입할 수 없다. 그들의 생산 방식이 서양식 소비 상품과 서비스(Western consumer goods and services)가 수입됨으로써 대체되었기 때문이

(everyone)에 의해 향유되는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다른 문화에 비해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강한 로컬문화가 있을 수는 있고, 그렇게 강한 로컬문화가 글로벌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다.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 시대인 오늘날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로 국가를 평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⁵²⁾ 그런 착오 때문에 <그림1>에서 살펴보았듯 문화 간 교류나 문화 간 대화가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글로벌 시대’, ‘글로벌 문화’는 ‘글로벌 시대’, ‘글로벌 문화’에 대한 오용이고 착각이다. 소위 <Globally thinking, Locally acting!>해야 한다는 외침의 진정한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⁵³⁾ 물론 국가의 위정자가 지향하는 곳은 ‘거기(global world)’일 수 있다. 하지만 자국민이 삶을 영위하는 곳은 ‘여기’가 아닌 ‘여기(local society)’라는 사실이다. ‘거기’와 ‘여기’라는 두 곳 간의 균형을 취하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국가도 자국민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로컬’의 변형은 국가공동체가 국민과 더불어 일구어내야 할 책무와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책무를 다할 때 한 국가의 문화가 보호·전승될 수 있으며, 정치·경제 공동체를 ‘문화적인 것’을 통해 공고히 결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⁵⁴⁾

다. 그들은 심지어는 우세한 문화(dominant culture)의 피해자가 되는 것마저도 선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 역시 글로벌 정치경제시스템에 묻혀버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신식문화들(modern cultures)은 하이브리드 문화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문화를 글로벌 문화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모든 전통 그리고 심지어는 가공품(artifacts)의 경우도 자신의 고유한 원천(own origin)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 Vladimir Korobov, *op. cit.*, 49-50쪽.

52)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마트파워위원회, 『스마트 파워』, 홍순식 옮김, 삼인(도)(+호미), 2009 참조.

53) 이 표현은 애초 대영제국의 도시조경학자인 케디스가 영국식민지의 개별문화들에 대한 배려가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던 데서 나온 말이다 - Patrick Geddes, *The Evolution of Cities*, Willams & Norgate, 1960.

54) François Jullien(2008), *op. cit.*, 50-51쪽 참조. 줄리앙은 ‘문화적인 것(le culturel)’을 이분법적 대립항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보고 있다. 이런 입장에

참고문헌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마트파워위원회, 『스마트 파워』, 홍순식 옮김, 삼인(도)(+호미), 2009.

김성해·이동우, 『세계는 울퉁불퉁하다』, 민음사, 2009.

박치완, 「지식의 세계화에 대한 재고」, 『해석학연구』 29집, 2012.

-----, 「개입가치로서 공공선과 그 이면」, 『해석학연구』 제34집, 2014.

-----,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의 새로운 지형도」, 『철학논집』 제38집, 서강대 철학연구소, 2014.

-----, F. 줄리앙의 신문화론과 글로벌 공공선, 『동서철학연구』 제37호, 2014.

버만(M.), 『미국 문화의 몰락』, 심현식 옮김, 황금가지, 2002.

보드리야르(J.), 『소비의 사회』,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1992.

브뤼크네르(P.), 『번영의 비참』, 이창실 옮김, 동문선, 2003.

빨리웅(D.), 『신자본주의』, 서익진 옮김,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6.

사이드(E.), 『문화와 제국주의』, 박홍규 옮김, 문예출판사, 2005.

서킨(H. L.) 외, 『글로벌리티』, 김광수 옮김, 위즈덤하우스, 2010.

야마와키 나오시,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성현창 옮김, 이학사, 2011.

윌러스틴(I.), 『미국 패권의 몰락』, 한기욱 외 옮김, 창비, 2004.

-----, 『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김재오 옮김, 창비, 2008.

임동욱, 『세계화와 문화제국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최광식, 『한류로드: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합』, 나남, 2013.

푸코(M.), 『헤테로피아』, 이상길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4.

Bloom, A.,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New York: Simon & Schuster, 1987.

Featherstone, M., *Undoing Culture: Globalization, Postmodernism and*

Identity, Sage Publications, 1955.

Guillebaud, J.-C., *La refondation du monde*, Seuil, coll. «Points», 1999.

Jullien, F., *De l'universel, de l'uniforme, du commun et du dialogue entre les cultures*, Fayard, 2008.

-----, *L'écart et l'entre. Leçon inaugurale de la Chaire sur l'altérité*, Galilée, 2012.

Korobov, V., "Models of Global Culture", *Globalization & Identity*, New Brunswick & London: Toda Institute for Global Peace and Policy Research, 2006.

Mofid, K., "Globalization for the Common Good", *Globalization & Identity*, New Brunswick & London: Toda Institute for Global Peace and Policy Research, 2006.

Nye, J.,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Rapaille, C., *The culture code*, Random House of Canada, 2007.

Rifkin, J., *The European Dream*, The Penguin Group, 2004.

Schmidt, E. and Cohen, J., *The New Digital Age*. John Murray, 2013.

Warnier, J.-P., *La mondialisation du monde*, La Découverte, 2004.

서 그는 “서구유럽철학은 바로 이 사이를 연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A New Horizon of Cultural Interpretation in the Era of Glocalization

Park, Tchi-Wan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It is obvious that globalization of today is not only influencing on economy but also penetrating into culture and knowledge. Through re-enforcement of its power by integrating with digital technology, the single governance system has been accelerated with more powerful form. However, from my point of view, it is clear that the unification of economy-culture-knowledge-technology is merely a strategy to justify the ‘surveillance and punishment’ of so-called global actors, neo-liberalists, and market fundamentalists.

In this article we have diagnosed that the modern imperialist’s ideology has been revived and repeated in this era, then we make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sketch of multi-cultural symbiotic by creating the concept of ‘Pluri-verse-cultures’ as an alternative of (to substitute) the illusive concept of ‘Uni-verse-culture’. Pluri-verse-cultures is basically a new cultural hermeneutics, requested in 21st century, and is a new philosophical aim based on an idea that the cultural diversity can hardly be respected unless each local cultures are revitalized.

The valuables, such as democracy, human rights, world peace, social and economical justice, can hardly be expected without the symbiosis with the Pluri-verse-cultures. In this regards, the current American dream and Chinese dream, as well as Korean Wave or Korean dream more directly,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cultural invasion disguising as the universal. As Kamran Mofid points out accurately, it’s the time

to awakening, for all of us, that “common good for all (mankind)” shall not be commensurate with the plots of market-dominating power.

Key words: Era of glocalization, Globalization, Multi-cultural coexistence, Uni-verse-culture, Pluri-verse-cultures

박치완 e-mail: chwpark001@hanmail.net

투 고 일	2015년 04월 15일
심 사 일	2015년 04월 25일
계재 확정	2015년 05월 25일